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메모리 다운사이클... 대규모 M&A

해묵은 현안 해결한 삼성... JY, 초격차 위한 전략 '잔걸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운드리, TSMC 추격 속도 전망
메모리 시장 대응 투자계획 손질
전장 반도체와 M&A 가능성도
정기 인사개편으로 새 체제 시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묵은 과제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냉혹한 현실'에 대응할 새로운 처방도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은 숙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복미 출장으로 현지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팹 증설 확정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1년 가까운 장고 끝에 현지 팹 증설을 확정하면서 비로소 고객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미국 현지에 첨단 파운드리 팹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해 신규 고객사 유치 작업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네트워크 장비 사업도 다시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이 주요 고객사인 버라이즌과 만나면서다.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5G에 이어 6G 기술까지 개발하며 시장 주도권을 키워가는 만큼, 버라이즌과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만나면서 연동성 강화와 모바일 생태계 확대 등 논의도 예상됐다. 미래 산업 핵심 기업인 아마존 등과의 만나면서 신규 수주 기대감도 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도 'QD 디스플레이' 양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시스

자가 주도하던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단계 앞선 퀀텀닷 기술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은 귀국길에 '냉혹한 현실을 보고왔다'는 소감을 남겼다. 모처럼 복미 출장으로 여러 난제를 해결했음에도 우려가 더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위기감이 큰 분야로는 파운드리가 꼽힌다. 당초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등 기술을 내놓으며 우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에만 TSMC뿐만 아니라 인텔까지 파운드리 경쟁에 뛰어들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테일러 팹 증설로 한시름 놓게 됐지만 가동을 시작하는 2024년에는 인텔이 '웅스트롬' 시대를 열며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한 시기인 만큼 여전히 '초격차'를 위한 선도 공정 개발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메모리 '다운사이클'도 문제다. 최근

반도체 공급난에 메모리 수요가 주춤하는 상황,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도 보수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빠른 반등을 통한 새

로운 슈퍼사이클 진입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삼성전자 신규 투자 방침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규모 M&A도 아직 이 부회장이 해

결해야 하는 과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장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NXP와 인피니온,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 후보로 꼽힌다. 인수 금액이 수십조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확보한 '실탄'을 감안하면 크지 않지만, 중국 등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뉴 삼성'도 이제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주요 조직으로 성장한 가운데,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이번 정기 인사 개편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 유연성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본격화하면서 미래 준비에 더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됐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원유대체 수요 증가”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수급 불균형에 국제유가가 강세 전망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원유 대체 수요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원유 수급 불균형도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우려가 더해진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원자재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계절적 수요와 여타 에너지 대체 수요가 확대된 반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최근 천연가스 등 여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유 대체 수요(gas to oil switching)가 확대되면서다.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OPEC+)는 미국 등 주요국의 지속적인 추가 증산 요구를 거부하며 예정된 증산규모(일평균 40만배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1월 중순 이후 미국, 중국 등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증대됐다. 유럽의 경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글로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기초적인 원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천연가스·석탄과 비철금속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천연가스(네덜란드 TTF 거래소 기준) 및 석탄(호주 뉴캐슬 거래소 기준)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8.8%, 26.4% 하락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대(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확대에 따라서다. 석탄 가격은 중국내 석탄 공급 확대로 공급제한이 완화된 영향을 받았다.

비철금속지수(11월 1일~24일 중 평균)는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의 석탄 증산 허용에 따른 전력난 완화, 러시아의 수출관세 철폐 예상 등의 영향이다.

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 곡물지수(11월 1일~24일 중 평균)는 전월과 비교해 6.2% 올랐다. 소맥 가격은 러시아 수출 감소 우려, 주요국 기상 악화 등으로 8.3%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도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파종면적 감소 예상 등으로 6.2% 증가했다. /백지연 기자 wkdlus024@

롯데칠성음료

유동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세상 맛있는 ZERO!
칠성사이다 ZERO!

맛은 바로, 칼로리는 제로

Chilsung Cider ZERO